

부 록

I. 주요 인용 의서

《家居醫錄(가거의록)》 : 총 16卷. 明代 薛己에 의해 저술되었다.

《甲乙經(갑을경)》 : 《鍼灸甲乙經(침구갑을경)》을 말한다. 黃甫謐이 서기 259년 전후에 편찬하였다. 총 10卷으로 후에 12卷, 128篇으로 개편되었다. 《素問》·《靈樞》·《明堂孔穴鍼灸治要》를 分類·合編한 것이다. 臟腑經絡·脈診理論·俞穴部位·鍼灸法 및 禁忌·病因病理 및 각종 질병의 證候·鍼灸取穴 등에 대해 논술하였으며, 현존하는 최초의 비교적 완전한 침구서적이다.

《綱目(강목)》 : 武之望의 《濟陰綱目제음강목》으로 보인다.

《金匱要略(금궐요략)》 : 東漢의 張機가 저술하였다. 총 3卷, 25篇에 262方의 方劑가 수재되어 있다. 漢代 이전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총결하고, 辨證論治 및 方藥配伍의 기본 원칙에 대해 부분적인 闡發이 있었다. 이 책의 처방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유효하여 현재까지도 임상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부인과 임상과 관련하여서는 심신증과 연관된 臟躁證, 베체트병과 연관된 狐惑病, 월경병, 부인종양, 임신오조, 산후병 등에 있어서 참고 가치가 크다. 또한 수재된 처방 중에서는 甘麥大棗湯, 溫經湯, 半夏厚朴湯, 桂枝茯苓丸, 當歸芍藥散 등의 처방들이 임상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難經(난경)》 : 작자는 불확실하나 秦越人의 저술이라 託名하기도 하였다. 東漢시기 이전에, 혹은 일설에 따르면 秦·漢 시기에 만들어졌다고도 한다. 이 책은 의문점이나 어려운 것을 문답·해석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다. 1~22難은 脈診, 23~29難은 經絡, 30~47難은 臟腑, 48~61難은 病, 62~68難은 穴道, 69~81難은 鍼法에 대해 논하였다.

《內照經(내조경)》 : 藏象學에 관한 華陀의 책으로 전한다.

《大全(대전)》·《大全良方(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부인대전양방)》을 말한다. 宋代 陳子明이 서기 1237년에 편찬하였다. 宋代 이전의 婦產科와 관련한 저서를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총 24卷 8門(調經·衆疾·求嗣·胎教·妊娠·坐月·產難·產後)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門에는 약간의 病證과 각 病證에 대한 病因·證候·治法이 기술되어 있고, 내용이 비교적 실용적이다.

《脈訣(맥결)》：宋代 崔嘉彦이 저술하였으며, 《崔氏脈訣(최씨맥결)》·《崔眞人脈訣(최진인맥결)》·《紫虛脈訣(자허맥결)》이라고도 한다. 후세의 脈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明代의 李言聞이 補訂하여 《四言脈要》라 改名하였고, 李時珍이 자신의 《濱湖脈學》에 수록하였다.

《脈訣舉要(맥결거요)》：《脈訣四言舉要(맥결사언거요)》. 清代 王道純이 宋代의 崔嘉彦이 저술한 《脈訣》을 토대로 하여 정리, 주석한 것이다. 총 2卷으로 上卷은 《內經》·《難經》·《傷寒雜病論》·《脈經》 등의 고전 의서에 王道純 자신의 견해를 결합하여 제목을 나누는 방식으로 崔嘉彦의 《脈訣》을 詮釋한 것이다. 下卷은 四診의 핵심을 서술하였으며, 아울러 高陽生의 《脈訣》을 고증한 것과 崔嘉彦의 原文을 附錄하였다.

《脈經(맥경)》：西晉의 王叔和가 저술한 중국 최초의 脈學 전문서이다. 漢代 이전의 脈學을 집대성한 것으로 《內經》·《難經》의 내용과 張仲景·華佗 등의 관련 논술을 선별하여 門·類로 나누어 脈理를 설명하였고, 실제 임상과 연계시켰다.

《脈要(맥요)》：《脈要圖注(맥요도주)》·《脈要圖注詳解(맥요도주상해)》를 말한다. 清代의 賀升平이 편집하여 서기 1783년에 간행되었다. 선인들의 脈學 관련 論著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총 4卷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이 풍부하고 그림도 많은 편이다.

《名醫錄(명의록)》：《名醫別錄(명의별록)》을 말한다. 《別錄(별록)》이라고도 한다. 작자는 미상인데, 陶氏라는 說도 있다. 대략 漢代 말기에 만들어졌는데, 秦·漢代 醫家들이 《神農本草經》을 토대로 藥性の 효용과 새로운 약물의 품종을 보충, 기재하여 만든 것이다. 이처럼 역대 醫家들이 계속하여 匯集한 것이므로 《名醫別錄》이라 부른다.

《病機》：《病機機要병기기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蕭埴의 고찰에 따르면 이

책은 張元素의 저작이다.

《病源(병원)》 : 《諸病源候論(제병원후론)》을 말한다. 《諸病源候總論(제병원후총론)》 · 《巢氏病源(소씨병원)》이라고도 한다. 隋代의 巢元方 등이 서기 610년에 저술하였다. 현존하는 최초의 病因과 證候學을 논술한 전문서적이다. 총 50권이며, 전체를 67門으로 나누어 證候論 1720條를 열거하고, 각종 질병의 病因 · 病理 · 證候 등을 서술하였다. 각종 病證의 끝에 導引法을 附記한 것은 많지만 治療方藥은 기재하지 않았다. 《外臺秘要》 · 《太平聖惠方》 등에 있는 病因 · 病理 분석의 대부분이 이 책을 근거로 한 것이다.

《寶慶方(보경방)》 : 《產育寶慶集(산육보경집)》을 말한다. 원래는 작자 미상으로 《產育寶慶集方(산육보경집방)》 · 《婦人產育寶慶集(부인산육보경집)》이라고도 한다. 北宋의 李師聖이 본서를 발견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產論 21篇으로 되어 있는데, 처방이 없다. 후에 郭稽中이 治療方藥을 增補하여 서기 1131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간행하였다.

《婦人良方(부인양방)》 : 《校注婦人良方(교주부인양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婦人大全良方》을 지칭한 경우도 많았다. 《校注婦人良方》은 원래 南宋代의 陳子明이 지은 《婦人大全良方》을 서기 1529년에 薛己가 校注하면서 상당 부분의 처방을 정리한 후 자신의 醫案을 附入하여 엮은 부인과 전문서적이다. 이러한 재편과정에 의해 調經 · 衆疾 · 求嗣 · 胎教 · 妊娠 · 坐月 · 產難 · 產後 등 8門으로 구성되어 있던 《婦人大全良方》과 달리 이 책은 調經 · 衆疾 · 求嗣 · 胎教 · 候胎 · 妊娠疾病 · 坐月 · 產難 · 產後 · 瘡瘍 등 10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재편집된 《校注婦人良方》은 《婦人大全良方》의 기본 편제를 따르고, 주요 이론을 인용하면서 李杲와 같은 金元四大家의 이론 등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변증분류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薛己의 이론과 醫案을 附入하는 등 실용성을 높여 광범위한 流布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產寶(산보)》 : 《經效產寶(경효산보)》. 총 3卷으로 唐代의 昝殷이 서기 852년에 저술하였다. 卷上에는 妊娠期의 雜病 및 難產諸疾에 대해 논하였고, 卷中 · 卷下에서는 產後諸疾에 대해 논하였다. 이 책은 病候를 논술한 것은 많지 않지만 주로 구체적인 病證治療를 소개하였으며, 方藥의 대다수가 簡易하면서 실용적이어서 현재까지도 產科의 전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產寶方(산보방)》 : 《經效產寶(경효산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產寶百問(산보백문)》: 총 5卷. 原題는 元代의 朱震亨이 편집하고, 明代의 王肯堂이 訂正한 것이다. 현존하는 본서는 宋代의 書籍商인 齊仲甫가 《女科百門》을 改名하고 朱震亨의 이름을 빌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產寶新書(산보신서)》: 清代 單養賢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產孕集(산잉집)》: 총 2卷. 清代의 張曜孫이 편찬하였다. 본서는 妊娠 및 臨產前後 일부 病證의 증상과 치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후에 補遺 1卷을 추가하여 《重訂產孕集》이라고 명명하였다.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내용을 수재하고 있어 《東醫寶鑑》이 중국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의학교류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三因(삼인)》: 《三因極一病證方論(삼인극일병증방론)》을 말한다. 《三因方(삼인방)》이라고도 하며, 총 18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宋代의 陳言이 서기 1174년에 편찬하였다. 작자는 “의학의 요점은 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서의 앞부분에서는 醫學總論과 삼인을 논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總論 뒤에는 內·外·婦人·小兒科 각 과의 病證을 열거하고 治療方劑를 附記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임상을 삼인과 결합시킨 것으로 한의학 病因學說의 연구와 각 科의 임상치료에 모두 참고가치가 있다.

《聖濟經(성제경)》: 총 10卷. 《宋徽宗聖濟經(송희종성제경)》이라고도 한다. 舊題는 宋代의 趙佶(徽宗)이 編하고 吳提가 注를 달아 서기 1118년에 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理學思想을 기반으로 《內經》 중의 陰陽·運氣·攝生·臟腑·經脈·病機 등과 관련된 醫理를 논술하고 있는데, 대개 性理學을 醫學에 억지로 결부시킨 것이다.

《聖濟總錄(성제총록)》: 총 200卷. 《政和聖濟總錄(정화성제총록)》이라고도 한다. 宋代의 徽宗 때에 朝廷에서 인원을 조직하여 편찬하였다. 서기 1111~1117년(政和年間)에 간행된 후에 金代의 大定年間과 元代의 大德年間에 2회에 걸쳐 重刊되었다. 역대 醫籍과 民間驗方 및 醫家の 獻方을 채집하여 정리·匯編한 것이다.

《聖惠方(성혜방)》: 《太平聖惠方(태평성혜방)》. 총 100卷으로 서기 992년에 간행되었다. 北宋 翰林醫官院 王懷隱 등이 민간에서 수집한 效驗方을 토대로 北宋 이전의 각종 方

書와 관련 내용을 集成한 것이다. 수집한 方劑가 1만여 方에 달하며, 10세기 이전의 臨床 方劑를 총괄한 것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素問(소문)》: 《黃帝內經素問(황제내경소문)》이라고도 한다. 原書는 9卷, 모두 81篇이다. 본서는 人體解剖生理(臟象·經絡 등)·病因·病理·診斷(辨證)·治療·豫防·養生 및 사람과 자연·陰陽·五行學說이 의학에서 응용되는 것과 運氣學說 등의 여러 방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비교적 계통적으로 秦漢 이전의 의학적 성취를 반영하고 있다.

《女科正宗(여과정중)》: 清代 何松庵에 의해 저술되었다.

《女科集略(여과집략)》

《女科撮要(여과촬요)》: 明代 薛己가 편찬한 것으로 서기 1548년에 간행되었다. 총 2卷으로 上卷에는 經候不調·經漏不止 등 15類의 產科疾病에 대한 證治와 方藥을 기술하였고, 下卷은 保胎·小產 등 15類의 產科疾病에 대한 證治와 方藥을 기술하였으며, 각 질병의 말미에 醫案을 附記하였다. 현재 《薛氏醫案》에 실려 있다.

《靈樞(영추)》: 《黃帝內經靈樞(황제내경영추)》라고도 하며, 《內經》의 일부분이다. 原書는 9卷으로 모두 81篇이며, 《鍼經》 또는 九卷이라고도 한다. 본서는 《素問》의 논술과 비슷하며, 특히 經絡·鍼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다. 기초이론과 임상관련 내용에 있어서 《靈樞》는 《素問》의 내용과 상호보완적이며, 秦漢 시기의 의학이론, 특히 鍼灸治療 방법의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서 역대 醫家들이 중요하게 여겼다.

《運氣(운기)》: 《素問》의 『運氣七篇』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同名의 책으로 《聖濟總錄》에 포함된 申甫의 《運氣》가 있다.

《原病集(원병집)》: 明代의 唐椿이 서기 1474년에 편찬한 것으로 총 5卷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모두 元·亨·利·貞 네 종류로 나뉜다. 『元類要法』은 다시 상·하권으로 나뉘는데, 의학총론부분으로서 醫學習業·診候·藥性·察病·治法·經絡 등으로 나누어 논술하였다. 『亨類鈐法』·『利類鈐法』은 각 1권으로 風·中氣·中惡·寒 등 各類病證 및 外科·婦人科·小兒科 病證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貞類鈐方』 1권은 藥方과 用藥 방법, 湯·散·飲·丸(圓)·丹·膏 등 각종 方劑 및 雜病을 논술하였다.

《醫暇卮言(의가치언)》: 清代의 程林이 서기 1677년에 편찬한 것으로 총 2卷으로 되어 있다. 본서의 雜錄에는 각각의 관련 의학 典故가 들어 있다. 자연·물리현상을 논하고 아울러 의학을 해석하는 중에 조잡한 내용도 섞여 있다. 현재 《中國醫學大成》에 수록되어 있다.

《醫錄補遺(의록보유)》

《醫壘元戎(의루원용)》: 총 12卷. 元代 王好古가 편찬하였다. 이 책은 十二經을 綱로 삼아 먼저 傷寒을 서술한 후 雜證을 附記하였다. 학술은 張仲景을 근본으로 하였고 張元素·李東垣 등의 治法을 참작하여 보충하였으며, 選方은 《和劑局方》에서 採錄한 것이 매우 많다. 王好古는 治病에 있어 “脈에 따라 病을 관찰하고, 脈에 따라 處方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경험방도 많이 기술하였다.

《醫學綱目(의학강목)》: 明代 醫家인 婁全善에 의해 저술되었다.

《人鏡經(인경경)》: 《臟腑證治圖說人鏡經(장부증치도설인경경)》을 말한다. 총 8卷. 《人鏡經附錄全書(인경경부록전서)》라고도 한다. 原著者는 미상이다. 그 내용은 十二經과 奇經八脈의 순서에 근거하여 臟腑의 기능, 病狀 및 治法을 나누어 논술한 것이다. 후에 明代의 錢雷가 2卷을 보충해서 《人鏡經附錄》이라 하였고, 清代 초기의 張俊英이 2卷을 보충해서 《人鏡經續錄》이라 하였는데, 原書 8卷에 附錄 2卷과 續錄 2卷의 12卷을 합해서 《人鏡經附錄全書》라 부른다.

《褚氏遺書(저씨유서)》: 舊題에는 南齊의 褚澄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唐代人인 褚澄의 棺에서 발견한 石刻을 정리한 것으로서, 宋代 嘉泰年間に 간행되어 널리 퍼졌다. 모두 受形·本氣·平脈·精血·津潤·分體·餘疾·審微·辨書·問子の 10篇으로 나뉘는데, 내용이 간단하며 대부분 《內經》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著者는 精血·津液學說을 중시하였으며, 그의 血證 및 婦科病 증치에 대한 견해는 후세의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성과 사회적 위치에 따른 여성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한의학적 여성 심신의학 이론의 형성에 단서를 제공했다.

《折肱漫錄(절골만록)》: 明代 黃承晷가 저술하여 서기 1635년에 初刊되었다. 작자는 어려서 病이 많아 스스로 말하길 “무릇 方書에 실린 病證이 열 가지라면 다섯 가지는 앓아

보았고, 本草書에 실린 약물이 열 가지라면 네댓 가지는 맛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著書의 제목을 많은 경험을 통해 名醫가 되었다는 뜻의 “三折肱成良醫”에서 取하여 《折肱漫錄》이라 하였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직접 겪은 것을 養神·養氣·醫藥의 3門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醫理와 醫案도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된다.

《濟生方(제생방)》: 총 10卷. 《嚴氏濟生方(엄씨제생방)》이라고도 한다. 宋代의 嚴用和가 1253년에 저술하였다. 그 내용은 中風·中寒·中暑 등의 내과·외과·부인과 질병 79편을 포괄한다. 각 편마다 먼저 病候를 논술한 후에 方劑를 기재하였다. 方劑는 총 450여 方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處方의 대부분이 著者の 試用을 거친 것이어서 매우 실용적이다.

《濟生產經(제생산경)》

《濟陰綱目(제음강목)》: 총 5卷. 明代의 武之望이 저술하여 서기 1620년 간행되었다. 이 책은 《女科證治準繩》을 기초로 정리개편해서 만든 것으로 調經·經閉·血崩·赤白帶下·虛勞·積聚癥瘕·求子·浮腫·前陰諸疾·胎前·臨產·產後 및 乳病 등의 13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門마다 여러 가지 病證으로 나누어 醫論과 治方을 썼는데, 인용한 자료가 풍부하고 분류가 상세하며 處方도 실용적이어서 후세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證治要訣(증치요결)》: 《秘傳證治要訣(비전증치요결)》. 총 12卷. 明代의 戴元禮가 편찬하였다. 저자는 朱丹溪의 학설을 근본으로 삼고, 《內經》·《難經》에서부터 宋·元代에 이르기까지의 諸家學術經驗을 모은 것과 자신이 체득한 견해를 참고하여 각종 內科雜病 및 瘡瘍·婦科·五官科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病證의 증상과 치료를 논하였고, 諸中·諸傷·諸氣·諸血·諸痛·諸嗽·諸熱·寒熱·大小便·虛損·拾遺·瘡毒·婦人 등 모두 13門으로 나누어 증상을 열거하였다. 먼저 病因을 논하고, 그 다음으로 病源을 서술하여 증상에 따라 病證을 분석하였으며, 끝에 治法을 소개하였다.

《證治準繩(증치준승)》: 《六科證治準繩(육과증치준승)》이라고도 한다. 明代의 王肯堂이 編하여 서기 1602년에 간행되었다. 全書는 임상에서 각 科의 證治를 위주로 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雜病證治準繩》8卷, 《雜病證治類方》8卷, 《傷寒證治準繩》8卷, 《瘍醫證治準繩》6卷, 《幼科證治準繩》9卷, 《女科證治準繩》5卷을 포괄하고 있다. 다루고 있는 病證이 광범위하고, 각 病證마다 먼저 明代 이전의 역대 醫家들의 치료경험을 종합한 후 자

신의 견해를 밝혔으며, 病證과 脈狀의 相異함을 변별하고, 증상에 따라 論治하여 立法處方하였다.

《集驗方(집험방)》: 동명의 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 어떤 책인지 분명하지 않다. 隋代 姚僧垣의 책은 현존하지 않는다. 宋代 吳得夫의 책과 元好問 및 王樂野의 책 역시 현존하지 않는다. 기타 杜氏와 저자의 이름이 없는 세 권이 거명될 수 있으나 역시 현존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

《千金方(천금방)》: 《備急千金要方(비급천금요방)》·《千金翼方(천금익방)》. 唐代 孫思邈이 편찬한 것으로 《備急千金要方》은 총 30卷으로 구성되었으며 저자는 千金보다 人命을 중시하였으므로 “千金”으로써 書名을 삼았다. 卷1에서는 醫學總論과 本草·製藥 등을, 卷2~4에서는 婦科病을, 卷5에서는 兒科病을, 卷6에서는 七竅病을, 卷7~10에서는 諸風·脚氣·傷寒病을, 卷11~20에서는 內科雜病을, 卷21에서는 消渴·淋閉등을, 卷22에서는 疔腫癰疽를, 卷23에서는 痔漏를, 卷24에서는 解毒과 雜病 치료를, 卷29~30에서는 鍼灸孔穴主治를 수록하였다. 모두 233門, 5300首의 처방을 수록하였다. 수록된 醫論과 醫方은 《內經》이후로부터 唐代 초기 이전의 의학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千金翼方》은 《備急千金要方》을 보충하기 위해 재편집한 것이다.

《捷徑方(첩경방)》

《胎產須知(태산수지)》: 산과 전문의서로서 趙輝가 저술한 판본과 劉敦騭이 저술한 판본 두 종류가 있다. 趙輝가 저술한 책은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미 逸失되었다. 다만 그 내용이 明代 焦竑이 편찬한 《國史經籍誌》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劉敦騭의 책은 清代에 저술되었다. 劉敦騭의 字는 公碩이고, 의술이 뛰어난 학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아마도 후자를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便產須知(편산수지)》: 明代 顏漢의 산과 전문서적으로 弘治 12年(서기 1500년)에 高懋齋에 의하여 校訂된 바 있다. 이 책은 주로 산모의 起居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논술하고 있는데, 특히 胎教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明代에 여러 차례로 刻本刊行된 바 있다.

Ⅱ. 주요 인용 의가

龔雲林(공운림) · 龔廷賢(공정현, 궤팅씨엔) : 16세기 明代 醫家로 字는 子才, 號는 雲林이다. 江西省 金谿사람이며, 부친 龔信으로부터 의학을 배워 가업을 계승하였다. 저작으로는 《萬病回春》 · 《壽世保元》 · 《種杏仙方》 · 《雲林神驗》 등이 있으며 부친이 편찬하던 《古今醫鑑》을 완성시켰다. 그의 저술은 매우 광범위하여 診斷 · 內科 · 外科 · 婦科 · 兒科 · 五官科 · 本草 등을 포괄하며, 풍부한 내용과 임상경험이 실려 있다.

郭稽中(곽계중, 꾸어지쑹) : 宋代 醫家. 《產育寶慶集》을 저술하였다.

寇宗奭(구종석, 코우쑹서) : 12세기 宋代 醫家이다. 본적은 미상이며, 본래 汾州의 관리였다. 藥性의 연구를 중시하여 처방·용약에 있어서는 약성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10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장기간 식물을 관찰하며, 실험하고, 여러 학자의 설을 정리하여 《本草衍義》 전 20권을 써서 상용 약물 460종을 실었다.

羅謙甫(나겸보) · 羅天益(나천익, 루어티엔이) : 元代 醫家이며, 字는 謙甫이다. 眞定(지금의 河北省 正定)人으로 金代의 유명한 醫家인 李杲의 제자로 의학에 조예가 깊었다.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면서 諸家의 학설을 모으고 자신의 經驗良方과 經驗醫案을 덧붙여 《衛生寶鑑》을 저술하였다. 이 밖에 《內經類編》 등도 저술하였다.

羅周彥(나주언, 루어쑤안) : 17세기 초 明代의 醫家로 字는 德甫, 號는 赤誠이다. 歙縣(지금의 安徽省 歙縣)人으로 어려서 유학을 배우다가 나중에 의학을 배웠다. 江蘇, 湖北, 安徽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名家들과 의술을 토론했으며, 著書로는 《醫宗粹言》이 있다.

羅太無(나태무) · 羅知悌(나지제, 루어찌티, 서기 1243~1327년) : 元代의 醫家로 字는 子敬(一說 敬夫), 號는 太無이다. 錢塘(지금의 浙江省 杭州)人으로 金代의 名醫인 劉完素의 제자이다.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金代의 名醫였던 張從正, 李杲의 학설을 흡수하여 의학에 있어서 새로운 견해를 수립하였다. 이는 그의 제자인 朱震亨을 통해 더 한층 발휘되어 후에 丹溪學派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駱龍吉(낙룡길, 루어룽지) : 宋代 醫家로 생물 연대는 불분명하며, 《內經拾遺方論》 八卷을 저술하였다.

婁全善(누전선) · 樓英(누영, 로우잉) : 明代 醫家로 字는 全善이다. 어려서부터 의학을 연구하였으며, 《黃帝內經》 등의 古典 醫理를 따라 천변만화의 病態가 모두 陰陽五行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醫學綱目》을 저술하여 후대 의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單養賢(단양현) : 清代 醫家로 《產寶新書》를 저술하였다.

戴景元(대경원)

戴復庵(대복암) : 南宋代 永嘉 지역(지금의 浙江 溫州) 사람이다. 이름은 戴煨(대외, 따이웨이)이고 號가 復庵이다. 臨安府의 知錄이라는 관직을 맡은 바 있다. 咸淳年間(서기 1265~1274년)에 謝皇后가 怪疾에 걸려 혀가 입 밖으로 빠져나와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戴煨를 불러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는 皇后에게 消風散을 붙이도록 하여 치료하였다. 이에 황후는 몹시 기뻐 자신의 조카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이후 元의 침공으로 관직을 포기하고 道家에 입문하여 龍虎山, 衢州 등 지역을 돌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證治要訣》에서는 여러 번 ‘戴復庵’을 언급한 바 있으며, 明나라 李梴은 ‘復庵’은 곧 明나라의 太醫인 戴原禮의 號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胡澐은 《證治要訣》과 《證治類方》이 모두 戴原禮가 편찬한 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책들을 戴煨가 저술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저술들은 후세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後世方書의 내용이 많이 섞였다.

戴元禮(대원례) · 戴思恭(대사공, 따이서공, 서기 1324~1405년) : 明代의 醫家로 字는 原禮이다, 浦江사람이며, 어렸을 때 朱震亨에게 의학을 배웠다. 의술에 정통하여 병을 치료함에 항상 좋은 효과가 있었다. 洪武年間(서기 1368~1398년)에 조정의 부름을 받아 御醫가 되었고, 太醫院吏를 역임하였으며, 永樂初年인 서기 1403년에 노령으로 인해 사임하고 귀향하였다. 著書로 《證治要訣》 · 《證治要訣類方》 · 《推求師意》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을 통해 朱震亨의 저술을 정리하고 그 文義를 해석함으로써 朱震亨의 학설을 발전시켰다.

馬玄臺(마현대) · 馬蒔(마시, 마아셔) : 明代의 醫家로 字는 玄臺 혹은 元臺인데, 一說에는 仲化라고도 한다. 會稽(지금의 浙江省 紹興)인으로 班固의 《漢書藝文志》에 기재되어 있

는 《黃帝內經》 卷十八 및 《素問》『離合眞邪論』에 기재되어 있는 ‘九鍼九編’의 논법에 근거해서 《內經》을 《素問》과 《靈樞》 각 九卷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여겼다. 아울러 王冰 등이 注解한 卷數와 古書의 기록이 맞지 않으며, 《靈樞》는 문체가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예로부터 注解가 없었다고 여겨 《素問》과 《靈樞》를 다시 分卷하여 注解함으로써 최초의 전체 注釋본인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와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각 9卷을 간행하였다.

萬密齋(만밀재) · 萬全(만전, 완추안) : 15~16세기 명대 醫家로 字는 密齋. 羅田縣人). 저명한 소아과 전문 의학자로 《幼科發揮》 · 《育嬰秘訣》 · 《養生四要》 · 《保命歌括》 등의 책을 저술하였다. 소아과 임상 경험이 매우 풍부하여, 錢乙의 이론을 기본으로 錢乙의 五臟辨證 이론을 발전시켰고, 肝常有餘 脾常不足의 병리특징을 강조하여 脾胃의 조리를 치료에 중시하였다. 특히 痘疹에 풍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소아의 衛生, 調攝도 매우 중시하였다.

武叔卿(무숙경) · 武之望(무지망, 우즈왕, 서기 1552~1629년) : 明代의 醫家로 字는 叔卿이다. 關中(陝西省) 사람이며, 일찍이 王肯堂의 《證治準繩》 중에서 女科 부분에 근거하여 《濟陰綱目》을 편성하면서 門 · 類로 나누고, 綱 · 目を 두었는데, 비교적 널리 유포되었다. 이 밖에 《濟陽綱目》도 간행하였다.

繆仲淳(무중순) · 繆希雍(무희옹, 모우씨옹, 서기 1546~1627년) : 明代 醫家로 字는 仲淳, 號는 慕台이다. 江蘇省 常熟人으로 본초에 정통하였으며 《神農本草經》을 매우 추앙하여 30여 년 동안 대조 · 정정하면서 注疏를 달아 《本草經疏》를 저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초학, 특히 약물의 炮炙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이 밖의 저서로 《本草單方》과 《先醒齋醫學廣筆記》가 있다.

潘頌甫(반석보) · 潘楫(반즙, 판지) : 明代의 醫家로 字는 頌甫. 號는 鄧林이다. 仁和(지금의 浙江 杭州) 사람이며, 당시의 名醫인 王紹隆을 스승으로 삼아 診脈과 製藥術을 배웠다. 王紹隆이 지은 《醫燈續焰》에 注를 달기도 하였다.

方氏(방씨) : 方約之로 추정된다.

方約之(방약지) · 方廣(방광, 팡광) : 16세기 明代의 醫家이며, 字는 約之이다. 號는 古庵

이며, 休寧(지금의 安徽休寧) 사람이다. 먼저 유학을 배운 후에 의술을 익혔으며, 河南 洛陽과 陳留 등지에 거주하여 中原 일대에 그의 의술을 떨쳤다. 朱丹溪를 추종하여 《丹溪心法附餘》를 펴냈는데, 이 책은 朱丹溪의 학문을 전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塞流-澄源-復舊로 이어지는 그의 治崩三法은 현대 임상에서도 유효한 치료 원칙이다.

徐氏 : 徐春甫, 徐忠可 중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徐春甫(서춘보, 쑤춘푸) : 16세기 중엽 明代 醫家이다. 字는 汝元이며, 安徽 祁門사람이다. 名醫인 王宦에게 의학을 배우고 醫書를 널리 읽어 內科, 婦人科, 小兒科 등에 능통하였다. 《古今醫統》·《內經要旨》·《婦科心鏡》·《幼幼淮集》·《痘疹泄秘》 등을 저술하였다. 李杲의 학설을 매우 중시하였고, 좋은 의사라면 침구와 약에 능통해야 하며, 용약하는데 있어 古方에만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病證의 경중에 근거하여 약물을 가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徐忠可(서충가)·徐彬(서빈, 쑤빈) : 清代 醫家로 字는 忠可이며, 浙江 嘉興사람이다. 名醫인 喻昌의 제자로서 그의 의론을 계승하여 張仲景의 학문을 연구하였다. 《傷寒圖論》·《傷寒一百十三方發明》·《金匱要略論注》 등을 저술하였다.

薛立齋(설립재)·薛己(설기, 쉼지) : 薛己는 서기 1488년경에 태어나 1558년경에 사망하였으며, 字는 新甫이고 號는 立齋이다. 지금의 江蘇省 蘇州에 해당되는 吳縣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李東垣과 錢乙을 私淑했는데, 東垣의 補脾理論과 錢乙의 益腎理論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陽虛發熱에는 補中益氣의 처방을 통해 升舉清陽해야 하고, 陰虛發熱에는 六味地黃湯으로 培養陰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補脾補腎에 비록 陰陽氣血의 區別이 있지만, 실상 脾胃의 不足에 의한 것이 아주 많다고 하였다. 이는 脾腎이 모두 重要하지만, 脾胃가 主가 된다고 한 것이어서 東垣의 이론을 爲主로 하면서도 丹溪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수용하여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校注婦人良方》을 포함한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후인들이 《薛氏醫案》 二十四種으로 편집하였다.

葉氏(섭씨) : 葉以潛으로 보인다.

葉以潛(섭이잠) : 明나라 醫家 葉雲龍(섭운룡, 씨에원룡)이며, 字가 以潛이다. 盱江 지역(지금의 江西 南城)의 사람이다. 明德羅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의 醫術이 매우 뛰어나 良

醫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그는 劉完素,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 등 金元 四大家의 의학사상과 諸家の 이론을 집대성하여 《士林餘業醫學全書》 6권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士林餘業》이라고도 한다. 그의 저술은 방대하지만 험란하지 않고, 간략하지만 빠짐이 없어 후세의 호평을 받았다.

成無己(성무기, 청우지) : 11세기에 활동한 金代의 醫家로 聊攝(지금의 山東 聊城西) 사람이다. 대대로 의업을 이어온 집안 출신으로 《內經》·《難經》 등의 古醫書의 이론에 근거하여 《傷寒論》에 대해 전면적으로 註解·辨析하여 서기 1144년에 《注解傷寒論》 10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傷寒論》을 전면적으로 註釋한 것 중에 현존하는 최초의 저작이다. 이 밖에 《傷寒明理論》·《傷寒論方》을 저작하였다.

巢元方(소원방, 차오위엔팡) : 隋代의 醫家로 太醫博士를 역임하였고 《諸病源候論》의 공동편찬을 주재하였는데, 이는 최초로 질병의 病因과 證候를 논술한 전문서이다.

孫眞人(손진인)·孫思邈(손사막, 순서미아오) : 唐代 醫家로 京北 華原(지금의 陝西 耀縣) 사람이며, 唐代까지의 중국의학의 발전을 계통적으로 총결하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의학 대작인 《千金要方》 30권과 《千金翼方》 30권을 저술하였다.

楊仁齋(양인재)·楊士瀛(양사영, 양서잉) : 13세기말 宋代 醫家로 字는 登父, 號는 仁齋이다. 福州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의학에 뜻을 두어 《內經》·《難經》·《傷寒論》 등의 古醫書와 역대 名醫들의 저작을 깊이 연구하여 이를 융합하였다. 著書가 비교적 많으며, 《傷寒類書活人總括》·《仁齋直指方論》·《仁齋小兒方論》·《醫學眞經》·《察脈總括》 등이 있다.

楊子建(양자건)·楊康侯(양강후, 양강호우) : 11세기 北宋의 醫家이다. 字는 子健, 號는 退修. 著書로는 《十產論》·《護命方》·《通神論》 등이 있다.

嚴用和(엄용화, 안용후어) : 南宋의 醫家로 字는 子禮이며, 廬山사람이다. 상황에 맞게 질병을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고, 상투적으로 古方을 쓰는 것을 반대하였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하여 효과가 있었던 藥方 및 古人들이 사용하였던 처방을 수집 정리하여 서기 1253년에 《濟生方》 10권을 편찬하였다.

呂滄州(여창주, 뤼창쩌우)

吳梅坡(오매파) : 明나라 醫家 吳嘉言(오가언, 우지아언)이며, 字가 梅坡이다. 대략 서기 1507~1585년에 생존한 인물로서 分水 지역(지금의 浙江 桐廬)의 사람이다. 대대로 名醫를 배출한 가문에서 태어나 《素問》과 《難經》 등의 심오한 醫理를 일찍부터 익혔으며, 그 당시의 名醫로 명성을 널리 알려져 太醫院의 吏目에 올랐다. 그가 저술한 《醫經會光》 10권은 脈訣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하였으며 藥性에 관한 번잡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독창적으로 心·脾·腎을 중심으로 치료와 攝生을 하도록 창안하였다. 동시에 그는 病機, 運氣, 標本 등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도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의 또 다른 저술로는 《鍼灸原樞》 2권과 《醫學統宗》 등이 있었으나 모두 逸失되었다. 그의 아들도 易學과 醫學을 공부하였고 역시 醫家로 명성을 얻었다.

吳蒙齋(오몽재) : 元代 醫家인 吳恕(우수, 우슈)이며, 字는 如心이고 號는 蒙齋이다. 錢塘(지금의 浙江 杭州市) 사람으로 《傷寒論》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張仲景의 책이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 《傷寒活人指掌圖》를 편찬하여 初學者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溫隱居(온은거) : 南宋 시기의 醫家로 本名은 溫大明(온대명, 윈따밍)이며, 말년에 은둔 생활을 주로 하여 溫隱居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그의 본적은 河南이며, 高祖는 四明 지역(지금의 浙江 寧波)에서 주로 살았으며 名醫 王承宣에게서 의술을 전수 받았다. 그의 父親 溫制幹에 이르러서는 儒學과 醫術을 모두 精通한 인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도 家風을 이어받아 淳熙 初年(1174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保義郎과 和劑局의 약재 구입을 監督하는 관직 등을 맡았다. 嘉定 9年(서기 1216년)에 그는 5대에 거쳐 전해진 가문의 名方과 40여 년 동안 의술을 펴면서 터득한 經驗方 및 古今의 諸方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것이 《隱居助道方服藥須知》이다. 이 책은 77편의 詩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석과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후 明代의 熊宗立은 이 책을 再編하여 이름을 《溫隱居備急海上仙方》이라고 바꾸었다. 明代의 胡文煥은 이 책을 前集으로 삼고 《孫真人海上仙方》을 後集으로 편성하여 《海上仙方》으로 合編하였다.

王冰(왕빙, 와앙뽕)·王太仆(왕태부) : 唐代 醫家로 號는 啓玄子이고 太仆令의 관직을 지내 王太仆라고도 한다. 王冰은 《素問》이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篇目이 중첩되고 前後의 순서가 맞지 않으며 文義가 懸隔하다고 여겨 12년 동안 널리 물어 요체를 모으고, 郭子齋

堂이 그의 스승으로부터 전수 받은 秘本을 얻어 참작함으로써 次注를 가하였다. 또한 秘藏本을 합쳐 81편이 되도록 하여 서기 762년에 《注黃帝素問》 二十四卷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全元起가 《黃帝素問》을 注한 이후 처음으로 注釋, 整理한 것으로서 세상에서는 그 순서를 고려하여 《次注黃帝素問》이라 하였다.

汪石山(왕석산, 외양서사안) : 明代 醫家로 字는 省之이다. 부친을 이어 의업에 종사하다가 당대의 名醫가 되었다. 《黃帝內經》 등 고전에 이론을 의거하고 氣血의 調補를 강조하여 治病하며 理氣에 특히 치중하였다. 《石山醫案》 · 《醫學原理》 · 《脈訣刊誤》 · 《鍼灸問答》 등을 저술하였다.

王叔和(왕숙화, 왕슈허어) : 3세기 西晉의 저명한 醫家로 字는 熙, 高平(지금의 山西 高平, 一說에는 山東 濟寧이라 함) 사람이다. 太醫令을 지냈다. 脈學을 깊이 연구하여 前代의 문헌 중에 脈學과 관련된 내용을 모으고 자신이 터득한 것을 결합하여 《脈經》 10권을 編하였다. 이로써 24종 脈象의 의미를 기술하여 고대의 脈學을 체계화하였다. 이 밖에도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을 정리하여 고대의 의학문헌을 보존하고 의학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공헌을 하였다.

王安道(왕안도) · 王履(왕리, 와앙뤼) : 元末明初의 醫家이다. 서기 1332년에 태어났고 사망 시기는 알 수 없다. 字는 安道, 號는 畸叟 또는 抱獨山人, 昆山(지금의 江蘇 昆山) 사람으로 詩文書畫에 정통하였고, 일찍이 朱震亨에게 의학을 배웠다. 洪武 4년(서기 1371년)에 秦府良醫正에 임명되었다. 《標題原病式》 · 《百病鉤玄》 · 《醫韻通》 등의 저술도 있었는데, 전해지는 것은 《醫經溯洄集》 뿐이다. 이 책은 王履가 주장한 “융통성이 있어야지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진보적인 治學思想을 논술한 것이 적지 않고, 《內經》 · 《難經》 · 《傷寒論》 등 고전 의학이론 및 宋代 이후의 저명한 醫家들의 논점에 대해 독창적인 논술을 풍부하게 싣고 있다.

王宇泰(왕우태) · 王肯堂(왕궁당, 왕커언타양, 서기 1549~1613년) : 明代 醫家로 字는 宇泰, 號는 損庵, 自號는 念西居士이다. 翰林院 檢討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고향에서 의학을 연구하며 임상경험을 쌓아 11년에 걸쳐 《證治準繩》 44권을 편성하였고 후세 의학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도 《鬱岡齋筆塵》 · 《醫論》 · 《醫辨》 등을 저술하였고, 《古今醫統正脈全書》를 輯錄하여 고대 의학문헌을 정리하고 보존하는데 공헌하였다.

王子亨(왕자형) : 宋나라 시대의 의학자이다. 이름은 王旼(왕황, 와양황)이고, 字가 子亨이다. 간혹 王況으로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考城 지역(지금의 河南藍考)의 사람으로서 南京(지금의 河南 商丘)에서 名醫로 명성을 날린 宋道方의 사위였다. 그는 宋學에 전념하였던 인물이며, 또한 鍼灸에도 깊은 조예를 보였다. 놀란 탓에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집어넣지 못하는 괴질 환자를 침으로 치유한 바 있어 매우 유명해졌다. 이후 그는 方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宣和年間(서기 1119~1125년)에는 의술로 임금의 신임을 얻어 세인들이 그를 “王朝奉”이라고도 불렀다. 서기 1126년에 《濟世全生指迷方》 3권을 저술하였는데, 病症과 病源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논술을 폈다. 그 중 脈論과 辨脈法에 관한 각 항목은 쉽게 이해되도록 서술하여 임상가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으로 간주되었다. 원본은 이미 逸失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본은 《永樂大典》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흔히 《全生指迷方》이라 부른다.

王節齋(왕절재) · 王綸(왕륜, 와양륜) : 15세기 중엽~16세기 초에 활동한 明代의 관리이자 醫家이다. 字는 汝信, 號는 節齋이며, 慈溪사람이다. 古代의 本草 이론과 張潔古, 李東垣, 朱震亨 등 名醫들의 저작을 근거로 하여 《本草集要》을 편찬하였고, 이 밖에도 朱震亨과 李東垣의 학설을 융합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하여 서기 1502년에 《明醫雜著》를 편찬하였다. 그의 저술은 薛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王海藏(왕해장) · 王好古(왕호고, 와양hao구우, 서기 1200~?) : 元代의 醫家이며, 字는 進之, 號는 海藏으로 越州(지금의 河北 越縣) 사람이다. 李東垣에게 배워 의학에 정통했으며 《湯液本草》 · 《醫壘元戎》 · 《此事難知》 · 《仲景詳辨》 · 《傷寒辨惑論》 등의 저서가 있다. 內因을 중시하였고 脾와 腎의 溫補를 주장하였다.

虞天民(우천민) · 虞搏(우단, 위투안) : 明代 醫家로 字는 天民, 自號는 花溪恒德老人이다. 浙江 義烏人으로 만년인 서기 1515년에 《醫學正傳》을 편찬하였는데, 諸家들의 학설을 참고하고 자신의 견해와 임상 경험을 결합한 것으로, 논술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 《蒼生司命》도 편찬하였다.

袁了凡(원료범, 위엔랴오판) : 明代 醫家이자 학자(서기 1533~1606년)이다. 특히 河圖, 洛書 등 數理에 정통했다.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만든 《了凡四訓》이 대표적 저서이다. 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改運書로 널리 알려진 명저이기도 하다.

危氏(위씨) : 危亦林(위역림, 웨이린, 서기 1277~1347년)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元代の 저명한 의학자로 임상各科를 모두 연구하였는데 骨傷科에 특히 저명하였다. 字는 達齋로 南豐(현재의 西南豐)사람이다. 醫方이 너무 많고 번잡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元代醫學二十三科目을 참고하고 5代의 家傳經驗方을 묶어 서기 1337년에 《世醫得效方》을 엮어 서기 1354년에 간행하였다.

喻嘉言(유가언) : 喻昌(유창, 유차양, 서기 1585~1664년). 淸初의 醫家로 字는 嘉言, 別號는 西昌老人이다. 특히 《傷寒論》을 추앙하였고, 方有執의 《傷寒論條辨》을 토대로 하여 《傷寒論》의 條文을 진일보하게 분류, 귀납하였다. 질병을 치료할 때 병을 먼저 알고 그 후에 약을 논해야 한다고 하여 辨證論治의 사상과 醫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만년에 《尚論篇》·《醫門法律》·《寓意草》 등을 저술하였다.

劉元賓(유원빈, 류위엔빈) : 약 11세기 北宋의 의가로 方藥과 脈診에 정통하여 《通眞子補註王淑和脈訣》 등의 저술을 남겼다. 字는 子儀, 自號는 通眞子이다.

劉宗厚(유종후)·劉純(유순, 뤼춘) : 14세기 明代의 醫家. 字는 宗厚(一說에는 景厚라고 함). 의학에 정통하였으며 《素問》과 張仲景의 《傷寒論》이론을 토대로 하고 후세의 治方을 보충하여 《傷寒治例》를 編하였다. 이와 별도로 明代의 醫家인 徐用城(彦純)의 《醫學折衷》을 增補하여 《玉機微義》라고 改名하였다. 이 밖에도 《醫學小學》 등을 選輯하였다.

劉河間(유하간)·劉完素(유완소, 뤼완수, 서기 1120~1200년) : 金代의 저명한 醫家이며, 金元四大家 중의 한 사람이다. 字는 守眞이고, 自號는 通玄處士이다. 河間(지금의 河北 河間) 사람이며, 劉河間이라고도 하였다. 《素問》을 수 십 년간 열심히 연구하여 運氣學說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운기학설의 연구는 風·寒·暑·濕·燥·火가 질병의 발생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착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北方 지역에 熱性病이 유행함을 보고 《素問》의 病機十九條를 분석·연구하여 火熱性病의 이론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北方人의 체질과 열성병 유행의 특징을 근거로 그 치료경험을 총결하여 古方의 답습을 반대하고, 寒涼藥을 선용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후세에 溫熱病을 치료하는 데 깨우쳐 준 것이 많았다. 《太平惠民和劑局方》의 用藥이 燥熱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 극렬히 배척하였고, 질병을 치료할 때는 대개 降心火, 益腎水를 위주로 하였다. 寒冷한 약물을 선용하였으므로 후세에 그를 寒冷派라고 불렀다. 著書로는 《素問玄機原病式》·《素問病機氣宜保命集》·《宣明論方》·《三消論》·《傷寒直格》·《傷寒標本心法類萃》 등이 있다.

李東垣(이동원) · 李杲(이고, 리까오, 서기 1180~1251년) : 金代의 저명한 醫家로서 金元四大家 중의 한 사람이다. 字는 明之, 自號는 東垣老사람이며, 眞定(지금의 河北 正定) 사람이다. 明의 張元素를 스승으로 섬겨 학술에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시는 전란이 잦았으므로 사람들은 항상 기아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자극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질병이 매우 많았으며 傷寒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왕왕 효과가 없었다. 李杲는 오랜 의료경험을 통해 이러한 원인들이 쉽게 인체의 元氣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內傷學說’ 즉, “내부의 脾胃가 손상되면 온갖 병이 이로부터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울러 《內經》의 四時에는 모두 胃氣를 調養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치료에 있어서는 調理脾胃, 升提中氣를 강조하였고, 직접 補中益氣湯 등의 새로운 방제를 창안하였다. 李杲는 溫補하는 방법으로 脾胃를 잘 조리하였으므로 후세에서 그를 대표로 하는 학파를 ‘補土派’라 불렀다. 만년에는 羅天益, 王好古 등에게 학술을 전하였다. 저서로는 《脾胃論》 · 《內外傷辨惑論》 · 《蘭室秘藏》 · 《醫學發明》 · 《藥象論》 등이 있는데, 한의학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李士材(이사재) · 李中梓(이중재, 리쥬즈, 서기 1588~1655년) : 明末의 醫家로 자는 士材. 號는 念菴, 華亭(지금의 上海市 松江) 사람이다. 《內經》과 《傷寒論》 등의 古醫籍과 宋 · 元代 名家들의 說을 깊게 연구하였는데, 張元素, 劉完素, 李杲, 朱震亨, 薛己, 張景岳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王肯堂, 施笠澤, 秦昌遇 등의 名醫들과 교제하면서 의술을 갈고 닦았다. 李中梓의 저술은 매우 많은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內經知要》 · 《士材三書》 · 《醫宗必讀》 · 《雷公炮炙藥性解》 · 《傷寒括要》 · 《願生微論》 등이 있다. 諸家들의 장점을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立論이 신중하고 공평하며 내용을 잘 요약하여 요점을 설명하였으므로 널리 읽혀졌다. 醫理에서는 腎과 脾를 함께 중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임상 실제와 결합하여 치료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正氣를 복돋는 것을 중시하였다.

李東壁(이동벽) : 李時珍(이시진, 리셔젠)을 말한다. 明代의 본초학자 겸 과학자로 字는 東壁, 號는 瀕湖이다. 약물 연구와 실천을 중시하였고 약물을 친히 복용하면서 임상관찰과 적용을 통해 연구, 비교, 분석을 하였고 고대 本草書籍의 약물의 산지, 품종, 약명 및 치료 작용에 대한 적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았다. 27년의 고생 끝에 《本草綱目》을 완성하여 모두 1,892종의 약물을 수록하여 本草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기타 저술로 《瀕湖脈學》 · 《奇經八脈考》 등이 있고 鍼灸學과 診斷學에도 상당한 공헌이 있었다.

李氏(이씨) : 《醫學入門》을 지은 李梴(이천, 리차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李太素(이태소)

張潔古(장결고) · 張元素(장원소, 짜위엔슈) : 12세기에 활동한 金代 醫家이다. 字는 潔古이며, 易州(지금의 河北省 易縣) 사람이다. 당시 의학계가 지나치게 古方을 고수하는 풍조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古今의 運氣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古方은 新病에 맞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제창하였고, 당시의 기후변화와 환자 체질 등의 정황에 근거하여 융통성 있게 약물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임상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도록 古方을 잘 化裁하여 新方을 만들었다. 약물의 효능을 깊이 연구하여 藥物氣味の 升降作用과 藥物歸經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著書로는 《醫學啓源》·《珍珠囊》·《臟腑標本藥式》·《藥注難經》 등이 있다. 제자인 李杲가 이를 모두 전수받았고, 아들인 張子璧은 그의 醫業을 계승하여 당시에 이름을 떨쳤다.

張景岳(장경악) · 張介賓(장개빈, 짜지에벤, 서기 1563~1640년) : 明代의 저명한 醫家로 字는 景岳 혹은 會卿이며, 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 사람이다. 《素問》과 《靈樞》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30년에 걸쳐 《類經》을 편성하였다. 또한 《類經圖翼》·《類經附翼》·《質疑錄》을 편집하였으며, 만년에는 과거의 임상경험을 결합해서 《景岳全書》를 집성하였다. 그는 의학이론 방면에 있어서 초기에는 朱震亨의 “陽常有餘, 陰常不足” 이론을 따랐으나, 중년 이후에는 《內經》의 “陰平陽秘, 精神乃治” 등의 이론에 근거하여 朱震亨의 이론에 크게 반대하면서 “陽非有餘”, “眞陰不足”, “人體虛多實少” 등의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眞陰 · 元陽을 溫補하는 方劑를 자주 사용하여 溫補派라 불리었다.

張璐玉(장로옥) · 張璐(장로, 짜루, 서기 1617~1700년) : 清代 醫家로 字는 路玉, 號는 石頑이다. 長州(지금의 江蘇省 吳縣) 사람이며, 저서가 비교적 많아 그 가운데 《傷寒續論》·《傷寒緒論》은 喻昌의 《尚論篇》및 각 醫家の 論注에 근거하여 《傷寒論》에 대해 注釋을 추가한 것이고, 《本經逢原》은 《神農本草經》을 근거로 해서 《本草綱目》에 기재된 약물에 대한 諸家の 治法 등을 참고로 하여 편성한 것이며, 《診宗三昧》는 脈理를 논한 전문서이다. 만년에 《張氏醫通》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역대 60여 醫家들의 저술을 모으고 100여종의 서적을 참고하여 수십 년에 걸쳐 그 원고를 열 번이나 고쳐서 완성한 것이다. 이밖에 《千金方衍義》 등도 저술하였다.

張飛疇(장비주) · 張倬(장탁, 짜꾸어) : 清代 醫家. 字는 飛疇이며, 江蘇省 吳江사람이다. 名醫 張璐의 차남으로 의업을 계승하였는데, 그 역시 名醫였다. 서기 1667년에 《傷寒兼證

析義》를 저술하였으며, 이 밖에 형인 張登과 함께 張璐가 배열한 《傷寒續論》과 서기 1667년에 간행된 《傷寒緒論》을 교정하였다.

張子和(장자화) · 張戴人(장대인) · 張從正(장종정, 쌍충정, 서기 1156~1228년) : 金代 저명한 醫家로 金元四大家의 한명으로 字는 子和, 自號는 戴人이다. 睢州 考城(지금의 河南省 睢縣 · 蘭考 일대) 사람으로 의술에 정통하였고 劉完素의 의학사상을 계승하여 寒涼한 약을 많이 쓰면서 汗吐下 三法을 잘 사용하였다. 치료에 있어서 攻下에 치우쳤으므로 攻下 派라 부르게 되었다. 후학이 그의 의학이론과 경험을 정리하고 增訂하여 《儒門事親》 40 卷을 편성하였다.

張嶠璜(장준황)

張仲景(장중경) · 張機(장기, 쌍지) : 2세기 중엽~3세기에 활동한 東漢시대의 뛰어난 醫家이며, 字는 仲景으로 南郡涅陽(지금의 河南省 南陽) 사람이다. 《內經》 등 고전 醫書의 이론에 의거해서 당시 醫家들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진료 방법을 널리 흡수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결합시킨 후 이를 상당한 수준의 이론으로 끌어올려 독창적인 《傷寒雜病論》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후대에 《傷寒論》 및 《金匱要略》으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그가 창립한 많은 치료원칙과 방법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한의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후대에 ‘醫聖’, ‘醫方之祖’로 추앙되었다.

褚侍中(저시중) · 褚澄(저징, 추쳐영, ?~서기 483년) : 南北朝시대 南齊의 醫家이다. 陽翟(현재의 河南省 禹縣) 사람으로 宋나라 文帝의 딸인 廬江공주와 결혼하였으며 建元 年間(서기 479~480년)에 吳郡太守를 지냈다. 의학에 뛰어났는데, 특히 《內經》에 정통하였다. 저서로 《雜藥方》 20권이 있으나 현존하지 않고 《褚氏遺書》 1권이 그의 것으로 題號되어 있을 뿐이다. 이 책은 唐나라 때 사람이 그의 棺에서 나온 石刻을 정리한 것을 편찬하여 제목을 붙인 것이다. 「受形」 · 「本氣」 · 「平脈」 · 「津潤」 · 「分體」 · 「精血」 등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의 전개가 간결하고 요점이 분명하며, 《內經》에서 이론적 근거를 많이 찾고 있다. 특히 과부와 여승은 일반적인 부인과 치료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 이론은 후대에 계승되어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답습은 한의사의 인간관과 임상관을 경도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환경에 의한 심신증 유발 가능성을 제기한 그의 근본적 취지에 맞게 ‘배려하는 임상적 시선’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程鳴謙(정명검)

程扶生(정부생)

程若水(정약수) : 明나라의 醫家 程式(정서)이다. 字는 心源이며, 號는 建武居士, 道承, 若水 등이 있다. 江西 南城 지역의 사람으로서 의학에 精通하였다. 《素問》, 《難經》, 《脈訣》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다. 또한 金元四大家의 學說을 두루 꿰고 있어 진료에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저술로는 《程氏醫說》 16권이 있는데, 1579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주로 후학에게 經絡을 파악하고 病機를 이해하여 의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程云來(정운래) · 程林(정림, 처영리인) : 17세기에 활동한 清代 醫家이며, 字는 雲來이다. 休寧縣(지금의 安徽省 休寧) 사람으로 宋代의 官立醫書인 《聖濟總錄》의 간행본과 필사본을 검토하며 번잡한 부분과 神仙服食 등의 황당한 내용을 삭제 정정하여 《聖濟總錄續要》를 편성하였다. 또한 唐代의 杜光庭이 서술한 《玉函經》을 수집하고 교정하여 서기 1647년에 간행하였다. 이 밖에 《即得方》 · 《金匱要略直解》 · 《醫暇扈言》 등을 저술하였다.

齊仲甫(제중보, 치종푸우) : 南宋의 醫家로 寧宗 때에 太醫局教授가 되어 產科를 주관하였다. 婦產科의 각종 病證에 상용되는 유효방제를 수집하고, 妊娠 · 產前 · 產後의 雜病 病例를 첨부하여 嘉定 13년(서기 1220년)에 《產寶百門》이라고 불리는 《女科百門》 2권을 편성하였다.

趙養葵(조양규) · 趙獻可(조헌가, 짜오씨엔커어) : 16세기 말 明代 醫家이며, 字는 養葵이다. 醫理에 있어서는 주로 薛己를 추앙하여 그의 命門說을 발전시켰다. 辨證治療에서 水火陰陽을 강조하였고, 治病에서는 六味地黃丸과 八味地黃丸을 주로 사용하였다. 대표작으로 《醫貫》 6권이 있다.

朱丹溪(주단계) · 朱震亨(주진형, 쑤젠호영) : 元나라 때 의학자로 字는 彥修이며, 丹溪라고도 한다. 劉完素와 李杲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며 劉完素의 火熱學說을 발전시켜 ‘陽有餘陰不足論’을 제창하였다. 相火의 常과 變을 논증하였으며 치료에 있어서 滋陰降火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후세에 滋陰派라고 불렸다. 越鞠丸, 大補元煎, 瓊玉膏

등을 만들었으며, 저서로 《格致餘論》·《丹溪心法》·《局方發揮》·《本草衍義補遺》 등이 있다. 부인과 이론과 관련하여서는 調氣를 중심으로 한 調經論을 제창한 점, 四物湯을 調經의 기본방으로 활용한 점, 肥人과 瘦人에 따른 치법을 적용한 점, 淸熱 중심의 安胎論을 편 점, 활동부족에 의한 난산의 예방을 위해 達生散을 운용한 점, 補虛를 중심으로 하는 產後 治法을 제창한 점 등의 제시가 뚜렷한 업적으로 남는다. 滋陰派는 물론 후대 溫補派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쳐 明代에 전개된 命門學說의 闡發에 크게 기여하였다.

陳無擇(진무택)·陳言(진언, 천안) : 南宋의 醫家이며, 字는 無擇이다. 靑田(지금의 浙江 靑田) 사람이다. 복잡한 질병을 病源에 따라 外因六淫·內因七情 및 不內外因 등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淳熙 원년(서기 1174년)에 《三因極一病證方論》 6권을 저술하였는데, 각 類마다 論술과 方이 있으며 千여 개의 醫方을 모았다.

陳良甫(진량보)·陳自明(진자명, 천즈미잉, 서기 1190~1270년) : 宋代 醫家로 字는 良父이며, 臨川(지금의 江西 撫州) 사람이다. 대대로 醫業에 종사한 집안 출신이며, 建康府明道書院의 의학교수를 역임하였다. 역대의 婦人科와 유관한 저술을 계통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자신의 임상경험과 家傳된 경험방을 결합하여 南宋 이전의 婦人科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여 嘉熙 元年(서기 1237년)에 《婦人大全良方》 24卷을 집성하였다. 이 책은 그 후 부인과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이 밖에도 그가 저술한 《外科精要》에서는 전신의 종합적 치료와 內·外治를 결합하는 치료법을 중시하였고, 癰疽 등의 증상에 대한 辨證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이후 外科學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陳藏器(진장기, 천창치) : 8세기 唐代의 本草學者로 《新修本草》 및 前代의 本草書에 빠진 약물이 매우 많은 것을 보고 이들 누락된 약물을 모아 책을 편성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사·연구하고, 그들의 투병 과정에서 알아낸 用藥法을 총결하여 《本草拾遺》 10卷을 편성하였다.

陳楚良(진초량)

初虞世(초우세, 추위서) : 北宋의 醫家로 字는 和甫이며, 의학이론을 깊이 연구하여 《養生必用方》(《古今錄驗養生必方》이라고도 함)과 《初虞世方》을 편찬하였다.

崔氏(최씨) : 崔嘉彦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崔紫虛(최자허) · 崔嘉彦(최가연, 추이지아얀) : 12세기 말 南宋의 醫家이며, 字는 希范, 號는 紫虛道人이다. 南康(江西省 南康) 사람으로 의학 연구에 정진하여 《難經》에서 논술한 脈의 浮 · 沈 · 遲 · 數을 綱으로 삼아 각종 病證에 대하여 논술하여 歌訣 형식의 《脈訣》 1卷을 펴내었으며, 杜光庭의 《玉函經》에 注釋을 달았다.

彭用光(팽용광, 평용구앙) : 明代의 醫家로 江西 廬陵사람이다. 走方醫로서 江蘇 · 浙江 · 廣東 · 河南 · 山西 등지를 주유하였다. 저서로는 《體仁匯編》이 있다.

何松庵(하송암, 허송안) : 清代 醫家로 《女科正宗》을 저술하였다.

許叔微(허숙미) · 許學士(허학사, 수우쉐서, 서기 1079~1154년) : 宋代 醫家로 字는 知可이며, 眞州 白沙(지금의 江蘇省 儀征) 사람이다. 進士에 합격하여 集賢院學士로 임명되었으므로 후인들은 그를 許學士라고 불렀다. 《傷寒論》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여 《傷寒百證歌》 · 《傷寒發微論》 · 《傷寒九十論》 등을 저술하였으며, 張仲景의 辨證論治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충하였다. 그는 古方의 활용과 新方의 創製에 뛰어났으며, 만년에는 그의 경험방과 醫案을 정리하여 《類證普濟本事方》을 엮었다.

壺仙翁(호선옹) : 東漢 시기의 인물로 一名 ‘壺公’이라고도 불렸다. 실제 이름은 失傳되었으며, 《歷代名醫蒙求》에는 謝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항상 빈 단지를 공중에 매달고 시장에서 약을 팔다가 파장이 되면 곧바로 단지 속으로 뛰어들어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費氏라는 가게 주인이 위층에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그를 쫓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 후 세간에서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단지를 입구에 매달아 놓았던 것은 이와 같은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胡孝(호효)

滑伯仁(활백인) · 滑壽(활수, 후아쇼우) : 14세기 元代 醫家이며, 字는 伯仁, 晚號는 撝寧生이다. 《素問》과 《難經》 등의 옛 醫書를 정독하여 깨달아 《讀素問鈔》 · 《難經本義》 · 《診家樞要》 등을 저술하였다. 일찍이 鍼砭法을 써서 難產 등을 치료하였고, 경락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 督脈과 任脈은 마땅히 12經과 대등하게 논하여야 한다고 하여 서기 1314년에 《十四經發揮》를 저술하였다. 經絡俞穴의 고증과 교정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참고문헌

- 蕭頊 原著, 郭端華 點校. 女科經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 蕭頊 原著, 陳丹華 點校. 女科經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 蕭頊 原著, 牛兵點 主編. 女科經綸. 北京; 華夏出版社 1997.
- 蕭頊. 女科經綸. 江蘇;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6.
- 김민성. 《女科經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달영, 김준기, 염용하. 金匱要略釋講.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 孫思邈. 千金要方 中國醫學大系 3. 서울; 도서출판정담 영인. 1986.
- 陳自明 著. 김동일, 오수석, 이태균 譯. 婦人大全良方. 서울; 광산출판사 2003.
- 陳子明 原著, 薛己 校注, 許潤三 等 注釋. 《校注婦人大全良方》注釋.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1986.
- 朱震亨.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 葉川, 建一 編. 金元四大醫學家名著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 張從正 著, 구병수 이동원 옮김.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張介賓 著. 이태균 편저. 婦人規. 서울. 법인문화사 1999.
- 王叔和. 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79.
-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 魏之琇 編著. 續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 宋 太平惠民和劑局.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李云. 中醫人名辭典. 國際文化出版公社 1988.
- 傳統醫學研究所 編. 한의학사전. 서울; 成補社 2001.
- 中醫人名辭典. 上海釋書出版社 1988.
- 馬大正. 中國婦產科發展史. 溫州;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91.
- 茅曉. 東漢名醫壺仙翁治病經驗探微上海中醫藥雜誌 2001 35;11 : 40~41.
- 嚴世藝.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4.
- 江克明, 包明惠. 校訂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1990.

- 余瀛鰲, 李經緯 主編. 中醫文獻大辭典. 北京; 科技出版社 2000.
- 연세대학교 허사사전편찬실 편. 허사대사전. 서울; 정보사 2001.
- 高大民族文化研究所中國語辭典編纂室 編.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 漢語大字典編纂委員會. 漢語大字典縮印本. 四川; 四川辭書出版社·湖北; 湖北辭書出版社 1997.
- 陳復華 主編. 古代漢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龔延明. 宋代官制辭典. 北京; 中華書局 1997.
- 中國歷史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5.

역자약력

김동일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한의학박사·한방부인과 전문의이며,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여성 의학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불임증·골반통 등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부인과학·부인대 전양방·태산심법·수행과 건강·증상학·증상을 알면 당신도 절반은 의사 등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김민성은 형상의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한의사이며, 이 책 여과경륜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올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도 성남에서 본디울 분당한의원을 열어 형상의학에 바탕을 둔 심신합일을 추구하는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형상의학회에서 재편집한 동의보감의 감수에 참여한 바 있다.